

보도시점 2026. 6. 25.(목) 11:00  
6. 26.(금) 조간

배포 2026. 6. 25.(목) 09:00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계동물보건기구 ‘항생제내성 협력센터’ 지정 기념식 개최

- 국내 동물 항생제 감시 및 원헬스 연구 역량, 세계 최고 수준 인정
-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생제내성 관리 아우르는 ‘국제협력 거점’ 역할 수행 본격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6월 25일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 이하 ‘WOAH’) ‘육상동물 항생제내성 협력센터’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와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를 비롯한 산·학계 주요 인사 60여 명이 참석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물 항생제내성 분야 국제 협력 거점으로서 검역본부의 비전과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하였다.

‘WOAH 협력센터’는 동물보건 분야의 특정 전문 영역에서 WOAH와 회원국에 과학적 자문, 기술지원, 교육·훈련 및 연구 협력 등을 제공하는 최고 권위의 전문 기관이다. WOAH는 전 세계 회원국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을 엄격히 평가하여 이를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총 183개 회원국 중 31개국이 협력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검역본부는 올해 개최된 제93차 WOAH 정기총회(5.18.~22, 프랑스)에서 그동안 축적해 온 동물 항생제 사용·내성 감시체계 운영 경험과 ‘원헬스(One Health)\*’ 기반 연구 역량을 인정받아 육상동물 항생제내성 협력센터로 신규 지정되었다.

\* 원헬스(One Health): 사람, 동물, 식물과 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각 분야 간 공조와 협력을 통해 전 지구적 보건 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패러다임

검역본부는 2008년부터 국가 차원의 동물 항생제내성 감시체계인 ‘KVA RMS(Korea Veterinary Antimicrobial Resistance Monitoring System)’를 선제적으로 구축·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국내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과 반려동물, 축산물에서 분리한 세균의 항생제내성 및 사용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추적해 왔다.

검역본부의 ‘KVARMS’ 조사 결과는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 정책 수립과 항생제 신중사용 지침\* 마련의 과학적 근거가 되었으며, 연구 기관·대학·기업 등이 항생제내성 발생·확산 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 항생제 신중사용 지침: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 임상수의사 등 진료 현장에서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제시한 기준

앞으로 검역본부는 WOAH 항생제내성 협력센터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동물 항생제내성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항생제 사용·내성 감시체계 구축, ▲실험실 진단·분석 역량 강화, ▲항생제 신중사용 교육, ▲원헬스(One Health) 기반 글로벌 공동연구 및 기술 자문 등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WOAH 협력센터 지정은 우리나라의 동물 항생제내성 관리 체계와 원헬스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WOAH 항생제내성 협력센터로서 동물 분야 내성균의 발생과 확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과 공중보건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책임자	과 장	조운상	(054-912-0722)
		담당자	연구관	강현미	(054-912-0764)